

복시독증의 예방과 치료

7

7월의 양돈관리 포인트

오늘 방문하게 된 농장의 주인은 양돈의 모든 과정에 항생제가 없으면 양돈 사양이 성립되지 않는 걸로 믿고 있는, 소위 시쳇말로 '무한항생교(無限抗生敎)' 신자들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았다. 조발성 대장균증이 무서워서 자돈이 태어나자마자 초유를 먹기도 전에 확실한 대장균 살상력을 가진 퀴놀론 계열의 경구 투여제를 짜 먹이는 사람이었으니 그 다음에 무슨 더한 짓을 못하겠는가?

"요즈음은 독성이 강한 PRRS나 싸코바이러스가 우리농장에 이에 눌러앉아 살고 있으니 주야장창 항생제로 확실하게 눌러주고 가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이연사 오늘도 이렇게 두 주먹 불끈 쥐고 힘주어 부르겠습니다!"

내 귀에는 그의 말이 마치 이렇게 웅변 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그의 말은 광신도적인 믿음과 불굴의 신념에 찬 목소리로 도무지 나의 주장은 먹혀 들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기 농장을 좀 봐달라고 날 불렀으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그럴까 싶어 서둘러 와 본 것이다.

설사라고 다 같은 건 아니다.

"도대체 이념들이 뭘 동맹해업을 하는 건지... 1주만 딱 넘기면 다들 약속한 것처럼 설사들을 하는데 뭘 약을 주사 봐도 듣지 않고 혹시나 싶어 분만사에 있는 모든에게 죽이는 항생제를 주야장창 먹여도 소용없고, 보온등을 갈해 줘도 고겡고...."

이거 사료가 나빠서 이런 게야? 아님 관리자가 시원치 않은 거야? 혹시 백신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이지경인 거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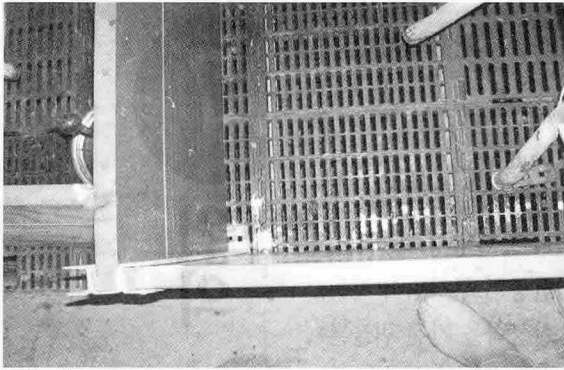
농장 주인은 담배를 줄로 피우면서 얘기를 정말 줄담배처럼 한다.

하긴 분만사 한 귀퉁이에 있는 약장엔 온갖 항생제 주사 등으로 빼곡한 품새가 약을 이것저것 어지간히도 갖다 쓴 것 같다.

"백신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해주는 건데요?"



황 윤 재 상무
금오BPC



<그림 1> 돈방 구석구석에 설사 흔적

장난기 넘치는 표정으로 물어 보았다.

요는 대장균이나 클로스트리디움 등에 관련된 백신이 빠져 있다는 얘긴데...

일단 현장을 돌아보니 사진처럼 돈방 구석구석에 설사 흔적이 흩어져 있었다. 농장주의 얘기처럼 1주령 이상의 자돈들에서만 나타나고 있고 돼지들이 지저분하고 다소 위축되어 보였지만 아직 설사를 보이다가 죽은 것은 없다고 했다. 그렇지만 1주령 이내의 조발성 대장균증은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모돈의 상태도 좋아 보였다.

또한 모돈군의 산차구성도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서 대장균 백신을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해봐야 지금의 설사증에는 하등 영향을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럼 뭘 해야 돼?"

백신이 필요 없다는 말에 약간 의외라는 듯 다소 실망스런 표정으로 물음이 왔다.

콕시듐증의 몇 가지 특징

농장주에게 이번 문제는 대장균과 같은 세균의 문제는 아니며 기타 사양관리나 사료의 문제도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고 아마도 여름철에 다발하는 콕시듐증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랬더니 대뜸 한다는 말이 몇 년 전부터 이웃에 육계농장이 들어왔는데 그 농장이 콕시듐으로 피해를 봤다는 소릴 들은 적이 있다며 거기서부터 콕시듐이 전파된 거라고 걸쭉한 육두문자를 써가며 '싫어 싫어 육계 싫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닌가?

그러나 이건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물론 콕시듐증은 거의 모든 가축에서 다 있지만 종특이성(種特異性)이 확실해서 서로 다른 축종에게 들어가서는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더구나 닭의 경우 아이메리아(Eimeria)라는 콕시듐의 일종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 돼지의 경우는 아이소스포라 수이스(Isospora suis)라는 종류가 원인체로 알려져 있어서 서로 족보가 달라도 많이 다르다. 그러니 이 양반은 괜히 죄 없는 육계농장 주인을 씹고 앉아있던 격이지 뭐냐. 만만한 게 흥어 뭐라고... 아무리 살기 딱딱해도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씌우진 말아야지.

또 하나 이 양반이 잘못하는 거. 설사가 다발하니깐 소독약(4가 암모늄제제)을 돈방마다 열심히 살포해 주는데 대부분의 설사도 그렇지만 콕시듐의 경우엔 더욱 더 돈방의 습기를 가중 시켜선 곤

란하다. 특히 콕시듐의 증란은 덥고 습한 환경에서 발아(發芽: Sporulation)가 촉진 되어 더욱 더 감염력이 높아질 뿐이다. 다른 세균성설사일 경우에도 분무소독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돈사에 돼지가 바글대고 있는 상황에서의 분무소독은 여간해서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갈길 간다.’ 뉘 이런 식이다.



또 하나, 콕시듐은 워낙 튼실해서 4가 암모늄제제를 비롯한 어지간한 소독약에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다. 물론 콕시듐에 효과가 있는 소독약이 있지만 이들은 돼지에게 직접 뿌려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빈 돈사나 발판소독용으로만 써야 한다.

‘그럼 1주령 경이면 시작되니까 대장균 설사증처럼 아예 분만사에 모돈이 입식되면 그때부터 콕시듐에 잘 듣는 약을 꾸준히 먹이면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요렇게 앞서 나간다. 그러나 콕시듐증의 경우는 조발성 대장균증과 다르게 수직감염, 즉, 모돈에서 자돈으로 전파되는 질병이 아니다. 이런 특이점이 오랫동안 잘못 인식되어 왔는데 모돈에게 항콕시듐 제제를 사전에 열심히 먹인다고 해서 자돈의 콕시듐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문제는 오염된 환경에 있다.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

‘앞으로는 그냥 3일령에 철분을 주사할 때 아예 콕시듐약도 짜 먹이세요. 또 돈 아낀다고 이웃집에서 양계용을 구해 먹이지 마시고 양돈전용을 쓰시구요.’ 이 사람의 현란한 자린고비 정신을 잘 아는지라 미리 못을 박아 주었다. 치료는? 역시 같은 약을 짜 먹이는 것과 동시에 설파제를 주사하는 것을 일러 주었다.(하지만 콕시듐의 경우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 질병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똥과 관련된 일반 위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분만사가 비었을 때 빈 돈사의 올인-올아웃과 수세는 필수사항이다. 똥을 제거하지 않으면 콕시듐도 제거 되지 않는다. 요즈음은 슬러리 돈사도 많은데 배치 단위의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돈방이 비었을 때 슬러리도 깨끗이 청소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수세를 할 때 비로소 콕시듐에 효과가 있는 소독약을 쓰면 그야말로 효과 짱이다.

또한 요즈음과 같은 여름철에는 돈방을 되도록 건조하게 유지하라고 농장주에게 주문했다. 요즈음은 꽤 고급스러운 가루 살포용 소독약이나 분만보조제가 유통되는데 이런 걸 돈방 내 젖은 부분에 적절히 사용하면 소독과 건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해서 추천해 주었다. **양돈**